

# 토론문

류준우 (주)그리드위즈 사장

안녕하십니까. 그리드위즈 류준우입니다.

먼저 전력시장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거버넌스 토론회까지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성공적인 전력신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에서 지난 10여 년간 4,500여 곳의 전력사용자와 함께 GW급 자원을 만들어온 사업자 전체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본 시각으로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 우리는 매우 다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100GW가 2030년 목표입니다. 아직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지금도 계통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주말이면 연일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출력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수요자원은 플러스DR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망 확충은 더디고, 장주기 ESS나 배전망 ESS는 순차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변동성은 이미 와 있는데, 유연성 보강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이 격차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메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수요자원입니다. 이미 자산이 있고, 데이터가 쌓여 있고, 10년의 기간동안 시장에서 그 신뢰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시장 확대는 없이 정산단가는 계속 깎아 왔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법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 **둘째, 수요자원의 정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요반응은 '비상시 부하를 줄이는 자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요자원은 '전력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연성 자원'이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AI데이터센터가 GPU 워크로드를 조정해 피크 시간 동안 전력소비의 25% 조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리드에 적절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산자원과 함께 계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하여 전력의 단순 이용자가 아

닌 참여자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계통에 들어오는 대형 부하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전력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참여자가 될수 있도록 그 기여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만 지속가능하고 적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이 모든 변화는 거버넌스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이 제값을 받는지, 규칙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와 같은 시장의 변화 방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변화의 내용이 가려지게 되면, 우리는 전력시장의 변화가 또 다시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장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다양성을 지키고, 새로운 참여자에게 공정한 길을 열고, 규칙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이것이 전력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봅니다.

수요자원이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업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등하게 경쟁하며 제값을 인정받고, 단순 전력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시장 참여자로 설 때, 우리 전력시장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